

교사의 공감능력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간의 관계에서 교사-유아관계의 매개효과 연구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Teacher-Child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Empathy Ability and Child's Peer Competence

차혜정¹ 송승민²

Hye-jung, Cha¹ Seung-Min Song²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among teachers' empathy ability, children's peer competence and teacher-child relationships.

Methods: 180 teachers and 360 children from 3 to 5 years old were included in the study. The research variables were measured by teachers' self-report through questionnair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test, one-way ANOVA, and 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Results: First, teachers' empathy ability and teacher-child relationship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eacher variables (age, marital status, parental status). And children's peer competenc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 Second, intimacy which was a subfactor of teacher-child relationships showed a perfect mediating role in the association between teachers' empathy ability and peer competence.

Conclusion/Implications: These results suggest the importance of teacher-child's intimate relationships since it affects the child's peer competence significantly. In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in order to help foster the teacher's empathic ability and teacher-child relationships which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child's desirable peer formation, continuous teacher education and diverse studies are needed.

key words teacher-child relationship, teacher's empathy ability, child's peer competence

* 본 연구는 2017년도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1 제1저자

수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석사과정

2 교신저자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부교수
(e-mail : smsong@suwon.ac.kr)

I. 서론

현대사회는 낮은 출산율과 핵가족화로 유아가 가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유아의 집단생활 경험 연령이 낮아지고,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은 증가하면서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또래관계는 유아기

에 경험하는 사회적 관계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유사한 지위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는 유아의 또래관계는 상호간 새로운 역할 모델을 제시하며 유아의 행동과 사고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또래 집단과 바람직한 상호작용은 인지 및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인관계 기술 획득 및 탈중심화, 올바른 성역할 정립,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에 기여하므로 유아기 또래관계는 유아가 성장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증가하게 된다(김창순, 2013). 이와 대조적으로 유아기에 경험하는 또래관계 문제는 성장함에 따라 비사교성, 비행문제, 심리적 장애, 신경증, 성격 일탈 등의 심각한 성격장애를 야기할 수 있으며(김영희, 2006), 이로 인해 부정적인 자기평가 혹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Hymel, Bowker, & Woody, 1993). 이렇듯 또래관계는 유아 자신의 성격발달 및 타인과 관계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유아기 성공적인 또래관계 형성을 위한 핵심 요소인 또래 유능성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김송희, 2014).

또래 유능성이란 또래와 사회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기능을 말하는데(Howes, 1987), 이는 함께 놀이하고 우정을 나누고, 의사소통을 매개로 상호 교류하며,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문제 발생시 타협하는 사회적 기술을 나타낸다(박주희, 2001). 또래 유능성이 높은 유아는 또래와의 관계에서 보다 사교적이고 친사회적 행동을 하며(송길연, 김수정, 이진연, 양돈규, 2000; 위영희, 2004), 주도적인 상호작용으로 성공적인 또래관계를 유지하는 바람직한 사회성을 보여준다(Coie, Dodge, & Kupersmidt, 1990). 또한 또래에게 능동적으로 놀이를 제안하고 자신의 의견을 또래에게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행동능력을 보였으며(박주희, 2001; 양인아, 2009), 또래를 돕고 나누고 위로하고 협동하면서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건강한 자아상을 형성하게 된다(Trawick-Smith, 2000).

이러한 또래 유능성은 개인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개인 내적 요인으로는 유아의 기질, 유아의 정서지능, 유아의 성격 등 유아의 개인적인 특성을 들 수 있다. 개인 외적 요인으로는 환경적으로 부모관련 요인과 교사관련 요인을 들 수 있는데, 개인 외적 요인 가운데 교사는 가족 다음으로 유아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최초의 성인이자 유아와 여러 방면에 걸쳐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중요한 존재이다. 교사는 유아에게 언어·인지적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보호 및 사회화 역할을 통해 또래와 긍정적 관계 형성을 도우며 성인과와의 신뢰관계 형성에 영향을 주는 등 유아의 인지적·사회적 능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Pianta & Walsh, 1996).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와 보내는 시간이 점차 증가하면서 유아에 대한 교사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게 됨에 따라 유아 또래 유능성의 중요한 맥락인 교사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공감은 Lipps(1903)가 심리학 분야에서 'Einfühlen' 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이래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는데,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간접적으로 느껴보고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을 의미한다(박성희, 1996). 즉, 교사가 유아의 개인적인 지각 세계 안에 들어가 유아의 관점을 이해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교실의 문제해결 상황에서 유아가 경험하는 것을 그들만의 독특한 관점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공감이 중요하며(Gage & Berliner, 1998), 유아의 발화 속에 숨은 감정과 의도를 찾는 공감적인 듣기는

좋은 교사가 되는데 필수적이다(Wollfolk, 1998). 교사의 공감능력은 유아와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유아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성향으로, 공감능력이 높은 교사는 교육대상자에게 평등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대화를 통해 스스로 책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고, 교육대상자들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황인호, 장성화, 2012). 공감은 사회적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교사와 유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교사의 공감은 유아의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교사-유아와의 관계 뿐 아니라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 교사의 공감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교사 공감능력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교사의 공감 및 긍정적 관심은 유아의 적응력을 높이고(Truax & Tatum, 1996), 교사가 보여주는 공감과 관심 수준은 유아의 성취 및 교실 행동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Stoffer, 1970). 또한 교사의 공감적인 상호작용은 안정적 애착을 형성하도록 하고(서원경, 2006), 바람직한 인격형성을 이루게 하며, 전인적 성장 및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원만한 사회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최선희, 황혜정, 2011). 즉, 교사가 유아와 공감적인 태도로 상호작용할 때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은 보다 촉진되고, 그 관계는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박경일, 2013). 이렇듯 교사의 공감능력이 유아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교사의 공감능력과 유아의 또래유능성과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둘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두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피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최근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교사-유아관계의 질은 부모 다음으로 전인적 발달을 돕는 중요한 요인이라 볼 수 있다. 유아와 오랜 시간을 함께 생활하는 교사는 유아의 행동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행동 전반을 파악하며 의사소통 수준과 또래관계를 직시하는 등 교사-유아관계는 유아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강정원, 2002). 유아는 교사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또래와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성을 학습하는데, 교사-유아관계가 긍정적이고 친밀할수록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높아지고, 교사-유아관계가 갈등적일수록 유아의 분노공격성이 높게 나타나며, 교사-유아관계의 친밀감이 적고 의존적일수록 유아의 불안은 증가한다(전경아, 2003). 또한 긍정적 교사-유아관계는 친밀성, 온정성, 개방적 의사소통과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키지만, 반대로 갈등적 교사-유아관계는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감소시키고 공격성과 위축 등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Birch & Ladd, 1997). 이처럼 교사-유아관계는 유아의 또래 유능성과 또래관계 형성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갈등적 교사-유아관계는 유아 또래 유능성과 또래관계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와 또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영향력이 커지게 됨에 따라 중요한 맥락인 교사-유아관계와 유아의 또래 유능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교사의 공감적 태도와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교사가 공감적인 태도로 유아와 상호작용할 때 교사-유아 상호작용은 촉진되고, 그 관계는 보다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박경일, 2013). 특히 교사-유아간의 관계에서 교사의 공감능력은 유아와의 갈등상황

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유아의 대인관계 형성과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박성희, 1996), 유아의 긍정적 사회관계 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어 공감능력이 높은 교사와 생활하는 유아는 수용과 이해의 학습을 통해 사회관계에 큰 성취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Krznaric, 2014).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교사의 공감적 태도가 교사-유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가 얻는 경험은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교사가 유아와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가는 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곽희경, 2011). 김명신(2017)은 유아교육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아와 공감하고 소통하며 유아의 입장과 감정을 존중하는 교사이며, 유아를 존중하는 교사일수록 유아와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교사와의 바람직한 상호작용은 교사-유아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로 발전하면서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우은주, 2017). 또한 김선희(2009)는 유아의 행동문제와 기질 사이에서 교사-유아관계의 중재적 역할을 보고하고 있는데, 교사-유아의 친밀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공포, 불안, 적대감 공격성은 낮아지고, 교사와 갈등관계가 높을수록 적대감과 공격성이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교사의 공감능력은 유아와의 공감을 통하여 유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돕고, 교사-유아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김경미, 2017), 교사-유아관계는 유아의 행동 모델로서 또래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또래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유아가 또래사회에서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기초가 된다(한선희, 2014)고 볼 수 있다. 즉, 교사-유아관계는 교사 공감능력의 영향을 받으며 또래유능성의 원인이 되는 변인으로, 교사 공감능력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주는 내적과정을 설명하는 변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매개변인으로 설정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유아관계의 이러한 매개역할 및 중재역할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유아를 대상으로 교사의 공감능력에 따른 유아의 또래유능성간의 관계에서 교사-유아관계의 매개역할 및 중재역할을 규명한 국내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유아기 교사와 맺게 되는 관계는 유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교사의 직접적인 영향 뿐 아니라 이러한 중재 및 매개적 역할로 규명하는 경험적 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유아 교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보다 심도있게 연구하여 향후 보육현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의 주요 연구변인들인 교사의 공감능력, 교사-유아관계 및 유아의 또래 유능성은 유아나 교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연정(2016)은 교사의 공감능력의 경우, 인지적 공감능력인 상상하기와 관점취하기는 25세 미만의 교사가, 개인적 고통과 공감적 관심의 정서적 공감능력은 41세 이상 교사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교사의 경력이나 담당 연령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김경숙(2016)은 40대 이상의 교사가 보다 높은 관점취하기와 공감적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상하기는 3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교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교사의 공감능력, 교사-유

아관계의 차이를 살펴본 선행 연구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으므로 이들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연구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교사는 유아의 학습과 발달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유아의 또래관계의 모델링이 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는 동일한 보육현장이라 할지라도 학급을 운영하는 교사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교사-유아관계의 경우에는 교사 관련변인이 교사-유아관계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교사 개인과 관련된 변인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요구된다는 김수희(2015)의 연구를 볼 때 교사-유아관계의 교사 관련 변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에 대한 연구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교사 관련 변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각 변인들의 교사변인과 유아변인에 따른 차이를 규명하고, 교사의 공감능력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간의 관계에서 교사-유아관계의 매개적 역할을 탐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 유아의 긍정적인 사회관계 형성과 또래발달을 위해 교사의 공감능력과 교사-유아관계의 중요함에 대해 규명하고자 하며, 교사 공감능력 및 교사-유아관계 향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교사의 공감능력, 교사-유아관계, 유아의 또래 유능성은 교사 배경변인(나이, 경력, 결혼유무, 자녀유무, 담당연령)과 유아 배경변인(성별,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교사의 공감능력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의 관계에서 교사-유아관계는 매개적 역할을 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교사 180명과 만 3,4,5세 유아 36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인 교사와 유아를 선정하기 위해 경기도 유아교육기관 약 70개소에 총 200부(여아 200부, 남아 2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고 교사 180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여 최종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유아의 성별은 남아 180명(50.0%)과 여아 180명(50.0%)이었으며, 연령별로 만 3세 120명, 만 4세 120명, 만 5세 120명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교사의 일반적 배경을 살펴보면, 교사의 연령은 30세 미만이 73명(40.6%)으로 가장 많았고, 경력은 5~10년 미만이 63명(35.0%)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혼의 교사가 93명(51.7%), 자녀 유무는 자녀가 없는 교사가 104명(57.8%)으로, 자격 사항은 유치원 2급 정교사가 103명(41.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사의 담당연령은 만3세 60명(33.3%), 만 4세 60명(33.3%), 만 5세 60명(33.3%)로 연령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표 1>).

〈표 1〉 교사 및 유아의 일반적 배경 (N = 540)

구 분	빈도(명)	백분율(%)
교사의 일반적 배경		
연령		
30세 미만	73	40.6
30-40세 미만	49	27.2
40세 이상	58	32.2
교사경력		
3년 미만	48	26.7
3-5년 미만	34	18.9
5-10년 미만	63	35.0
10년 이상	35	19.4
결혼유무		
미혼	93	51.7
기혼	87	48.3
자녀유무		
있음	76	42.2
없음	104	57.8
보유 자격증 (복수응답)		
보육교사 3급	7	2.8
보육교사 2급	59	23.5
보육교사 1급	68	27.1
유아교육기관 2급 정교사	103	41.0
유아교육기관 1급 정교사	14	5.6
담당연령		
만3세	60	33.3
만4세	60	33.3
만5세	60	33.3
계	180	100
유아의 일반적 배경	360	
성별		
남아	180	50.0
여아	180	50.0
연령		
만3세	120	33.3
만4세	120	33.3
만5세	120	33.3
계	360	100
합계	540	

2. 연구도구

1) 유아의 또래 유능성

유아의 또래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박주희와 이은혜(2001)가 개발한 또래 유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총 15문항으로 주도성 5문항, 친사회성 5문항, 사교성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도성 문항에는 ‘다른 유아들에게 인기가 많다’, 다른 유아들이 이 유아를 좋아한다’ 등이, 친사회성에 문항에는 ‘다른 유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다른 유아와 갈등을 경험할 때 타협을 잘한다’ 등이, 사교성에 문항에는 ‘다른 유아들과 놀이나 활동을 주도한다’, ‘다른 유아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한다’ 등이 포함되어져 있다. 이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교사가 평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 유능성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래 유능성 전체 Cronbach's α 는 .95이며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주도성 .92, 친사회성 .88, 사교성 .89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나타내었다(<표 2>)

<표 2> 또래 유능성 하위요인 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주도성	3,6,9,12,15	5	.92
친사회성	2,5,8,11,14	5	.88
사교성	1,4,7,10,13	5	.89
전체		15	.95

2) 교사의 공감능력

교사의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Davis(1980)의 대인관계 반응지수(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박성희(1996)가 번역하고 이상순(2008)이 교사를 대상으로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총 28문항으로 관점취하기 7문항, 상상하기 7문항, 공감적 관심 7문항, 개인적 고통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점취하기 문항에는 ‘남을 비난하기 전에, 내가 만일 그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상상해 보려고 노력한다’, ‘어떤 문제에 대해 내가 옳다고 확신하면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등이, 상상하기 문항에는 ‘소설을 읽을 때 주인공의 느낌에 정말로 깊이 빠져든다’, ‘연극이나 영화를 본 후 내가 마치 주인공인 것처럼 느낀적이 있다’ 등이, 공감적관심 문항에는 ‘나보다 불행한 사람들을 볼 때 자주 따뜻한 염려의 느낌을 가진다’, ‘나는 스스로 매우 부드러운 마음이 소유자라고 말하곤 한다’ 등이, 개인적 고통 문항에는 ‘긴급 상황에 처하면, 걱정과 불안을 느낀다’, ‘나는 비상시에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편이다’ 등이 포함되어져 있다. 이는 Likert식 5점 척도로 문항 중 9문항은 역점수로 처리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의 공감능력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의 공감능력 전체 Cronbach's α 는 .83이며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관점취하기 .73, 상상하기 .72, 공감적관심 .70, 개인적고통 .71로 나타났다(<표 3>).

〈표 3〉 교사의 공감능력 하위요인 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관점취하기	1,2,3,4,5,6,7	7	.73
상상하기	8,9,10,11,12,13,14	7	.72
공감적 관심	15,16,17,18,19,20,21	7	.70
개인적 고통	22,23,23,25,26,27,28	7	.71
전체		28	.83

3) 교사-유아관계

교사-유아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Pianta(1994)가 개발한 교사-유아관계척도(Student-Teacher Relationship Scale: STRS)를 이진숙(2001)이 번역,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총 28문항으로 친밀 12문항, 갈등 12문항, 의존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친밀 문항에는 ‘나는 이 아이와 애정적이고 따뜻한 관계를 맺고 있다’, ‘화가 나면 이 아이는 나에게 위로받기를 원한다’ 등이, 갈등 문항에는 ‘이 아이와 나는 서로 힘들게 지내는 것 같다’, ‘이 아이는 도움이 필요해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등이, 의존 문항에는 ‘이 아이는 나와 잘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다’, ‘이 아이는 나에게 매우 의존적이다’ 등이 포함되어져 있다. 이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요인에 대한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유아관계 전체 Cronbach's α 는 .85이며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친밀 .84, 갈등 .86, 의존 .72로 나타났다.

〈표 4〉 교사-유아관계 하위요인 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친밀	1,2,3,4,7,9,12,15,19,21,27,28	12	.84
갈등	5,6,11,13,16,18,20,22,23,24,25,26	12	.86
의존	8,10,14,17	4	.72
전체		28	.85

3. 연구절차

본 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연구에 사용하는 설문지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해 2016년 10월 20일~10월 22일 민간어린이집 2곳과 유치원 2곳에서 어린이집 교사 5명, 유치원 교사 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를 최종 완성하였다. 본 조사는 2016년 10월 24일~2016년 11월 12일까지 유아교육 기관에 연구자가 직접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어린이집 원장의 승인 하에 설문지를 교사에게 배부하였고, 교사가 연구의 취지에 대해 읽

고 동의서에 서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였다. 또한 유아의 또래 유능성을 평정하는 교사가 담임반에 재원하고 있는 1번 남아와 출석번호 3번 여아를 임의로 선정하여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사전에 공지한 후 담임교사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연구대상 유아의 선정은 연구자가 임의로 출석번호 1번 남아, 출석번호 3번 여아로 규정하는 단순무선표집을 사용하였으며, 선정된 유아에 대해서 교사가 답변하였다. 설문지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수거 및 전화로 협조를 구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9.0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연구변인들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공감능력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과의 관계에서 교사-유아관계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Baron과 Kenny (1986)의 3단계 접근모델을 사용하여 단순회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고, Sobel test를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교사변인, 유아변인에 따른 교사 공감능력, 교사-유아관계 및 유아 또래 유능성의 차이

1) 교사배경 변인 및 유아 성별에 따른 교사 공감능력 및 교사-유아관계 차이

교사 공감능력, 교사-유아관계가 교사변인(연령, 경력, 결혼유무, 자녀유무, 담당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표 5>). 그 결과 교사 공감능력 가운데 상상하기는 교사 연령, 결혼유무, 자녀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30세 미만의 교사가 30세 이상 교사보다 상상하기가 우수했으며, 미혼 교사가 기혼 교사보다, 자녀 없는 교사가 자녀 있는 교사보다 상상하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유아관계의 친밀성은 교사 연령, 결혼유무, 자녀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30세 미만 교사의 친밀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혼인 교사보다 미혼인 교사가, 자녀 있는 교사보다 자녀 없는 교사의 친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의 경우 40이상의 교사가 40세 미만의 교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혼인 교사보다 기혼인 교사가, 여아 보다는 남아와 더 높은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의존은 자녀 없는 교사가 자녀 있는 교사보다 더 높은 의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표 5〉 교사변인과 유아 성별에 따른 교사 공감 능력 및 교사-유아관계 차이 (N = 360)

구분	공감능력				교사-유아관계		
	관점 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	친밀	갈등	의존
연령							
30세 미만	3.28(.47)	3.12(.53) ^a	2.81(.37)	2.77(.51)	3.88(.44) ^a	1.57(.55) ^b	2.41(.83)
30-40세 미만	3.20(.51)	2.90(.51) ^b	2.82(.37)	2.65(.58)	3.72(.55) ^b	1.57(.54) ^b	2.23(.76)
40세 이상	3.38(.52)	2.90(.49) ^b	2.83(.46)	2.60(.55)	3.57(.67) ^c	1.78(.67) ^a	2.20(.85)
<i>F</i>	1.89	3.88*	.05	1.86	10.16***	5.00**	2.59
교사경력							
3년 미만	3.29(.49)	3.04(.58)	2.79(.35)	2.80(.46)	3.78(.52)	1.67(.59)	2.43(.85)
3-5년 미만	3.27(.44)	3.08(.49)	2.83(.33)	2.65(.55)	3.82(.48)	1.54(.55)	2.22(.84)
5-10년 미만	3.24(.50)	2.95(.50)	2.81(.45)	2.61(.58)	3.65(.63)	1.61(.57)	2.32(.77)
10년 이상	3.41(.56)	2.91(.50)	2.86(.44)	2.68(.58)	3.75(.57)	1.76(.68)	2.13(.83)
<i>F</i>	.94	.97	.21	1.18	1.60	1.78	2.08
결혼유무							
미혼	3.25(.52)	3.07(.54)	2.81(.37)	2.73(.51)	3.83(.49)	1.57(.54)	2.37(.81)
기혼	3.34(.47)	2.90(.48)	2.82(.43)	2.63(.58)	3.64(.62)	1.71(.64)	2.22(.83)
<i>t</i>	-1.26	2.16*	-.14	1.30	3.32**	-2.24*	1.73
자녀유무							
있음	3.37(.48)	2.89(.49)	2.82(.43)	2.60(.59)	3.63(.64)	1.70(.65)	2.17(.82)
없음	3.23(.51)	3.06(.53)	2.81(.37)	2.75(.50)	3.82(.49)	1.59(.55)	2.39(.81)
<i>t</i>	1.91	-2.23*	.15	-1.81	-3.14**	1.74	-2.48*
담당연령							
만3세	3.26(.54)	2.94(.53)	2.84(.42)	2.70(.54)	3.74(.57)	1.63(.62)	2.39(.87)
만4세	3.22(.48)	2.99(.55)	2.74(.38)	2.62(.50)	3.76(.6)	1.66(.58)	2.31(.75)
만5세	3.40(.47)	3.04(.48)	2.88(.39)	2.73(.59)	3.71(.53)	1.62(.59)	2.19(.83)
<i>F</i>	2.05	.58	2.00	.62	.30	.12	1.83
성별							
남아	-	-	-	-	3.69(.51)	1.71(.59)	2.21(.75)
여아	-	-	-	-	3.78(.61)	1.57(.59)	2.38(.88)
<i>t</i>	-	-	-	-	-1.45	2.13*	-1.96

p* < .05, *p* < .01, ****p* < .001.

주. Duncan's test: a > b > c.

2) 유아변인에 따른 유아 또래 유능성의 차이

유아 또래 유능성이 유아변인(연령,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표 6>). 그 결과 유아 또래 유능성의 친사회성은 유아 성별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아가 남아보다 친사회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도성과 사교성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연령과 또래 유능성과의 유의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유아변인에 따른 유아 또래 유능성 차이

(N = 360)

구분	또래 유능성		
	주도성	친사회성	사교성
연령			
만3세	3.33(.85)	3.19(.84)	3.32(.85)
만4세	3.40(.92)	3.32(.82)	3.43(.88)
만5세	3.30(.87)	3.27(.88)	3.35(.87)
<i>F</i>	.39	.77	.49
성별			
남아	3.29(.89)	3.11(.84)	3.32(.90)
여아	3.39(.86)	3.41(.82)	3.41(.82)
<i>t</i>	-1.08	-3.45**	-1.00

p* < .05, *p* < .01, ****p* < .001.

2. 교사 공감능력과 유아 또래 유능성간의 관계에서 교사-유아관계의 매개적 역할

교사 공감능력과 유아 또래 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교사-유아관계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접근 모델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변인들의 첫 번째 단계에서 교사의 공감능력을 독립변인으로 교사-유아관계 하위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 교사 공감능력을 독립변인으로 유아 또래 유능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 교사 공감능력과 교사-유아관계 하위요인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하고 유아 또래 유능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교사-유아관계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보았다(<표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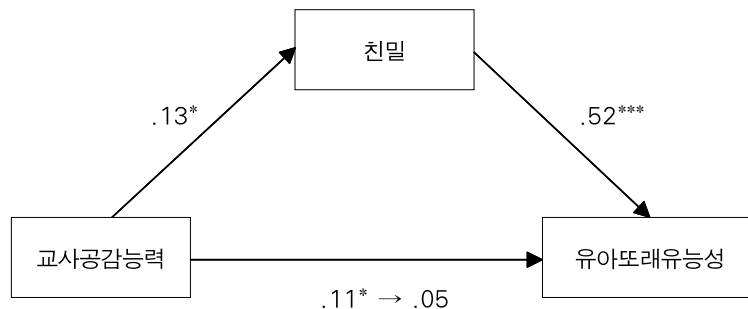
먼저 교사 공감능력과 유아 또래 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교사-유아관계 친밀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보았다.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첫 번째 단계에서 교사 공감능력은 교사-유아관계 친밀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표 7〉 교사 공감능력과 유아 또래 유능성간의 관계에서 교사-유아관계의 매개적 역할 (N = 360)

단계	독립	종속	B(SE)	t	F	R ²	Z
1	교사의 공감능력	→ 친밀	.34(.14)	.13*	5.83*	.02	2.38*
2	교사의 공감능력	→ 유아의 또래 유능성	.42(.20)	.11*	4.60*	.01	
3	교사의 공감능력	→ 유아의 또래 유능성	.18(.17)	.05	69.22***	.28	
	친밀	→ 유아의 또래 유능성	.72(.06)	.52***			
1	교사의 공감능력	→ 갈등	-.24(.15)	-.09	2.58	.01	1.57
2	교사의 공감능력	→ 유아의 또래 유능성	.42(.20)	.11*	4.60*	.01	
3	교사의 공감능력	→ 유아의 또래 유능성	.30(.18)	.08	37.34***	.17	
	갈등	→ 유아의 또래 유능성	-.53(.06)	-.40***			
1	교사의 공감능력	→ 의존	-.37(.21)	-.09	3.22	.01	1.18
2	교사의 공감능력	→ 유아의 또래 유능성	.42(.20)	.11*	4.60*	.01	
3	교사의 공감능력	→ 유아의 또래 유능성	.39(.20)	.11*	3.43*	.02	
	의존	→ 유아의 또래 유능성	-.08(.05)	-.08			

*p < .05, **p < .01, ***p < .001.

살펴본 두 번째 단계에서도 교사 공감능력은 유아 또래 유능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세 번째 단계에서 교사의 공감능력은 유아 또래 유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교사-유아관계 친밀만이 유아 또래 유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값이 1.96보다 크게 나타나 교사 공감능력과 유아 또래 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교사-유아관계 친밀의 완전 매개 역할이 확인되었다(그림 1).



〔그림 1〕 교사 공감능력과 유아 또래 유능성간의 관계에서 친밀의 매개적 역할

*p < .05, ***p < .001.

다음으로 교사 공감능력과 유아 또래 유능성간의 관계에서 교사-유아관계 갈등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보았다.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첫 번째 단계에서 교사 공감능력은 교사-유아관계 갈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매개효과 성립을 위한 첫 번째 단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교사 공감능력과 또래 유능성간의 관계에서 교사-유아관계 갈등은 매개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사 공감능력과 유아 또래 유능성간의 관계에서 교사-유아관계 의존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보았다. 교사-유아관계 갈등과 마찬가지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매개효과 성립을 위한 첫 번째 단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교사 공감능력과 또래 유능성간의 관계에서 교사-유아관계 의존은 매개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경기도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교사와 만 3, 4, 5세 유아를 대상으로 교사변인에 따라 교사 공감능력, 교사-유아관계 및 유아변인에 따라 또래 유능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고, 세 변인들 간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 외에도 교사 공감능력과 유아 또래 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교사-유아관계의 매개적 역할에 대해 탐색해 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변인, 유아변인에 따른 교사의 공감능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교사의 연령, 결혼 유무, 자녀 유무에 따라 공감능력 중 상상하기 능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세 미만인 교사가 30세 이상인 교사보다, 미혼인 교사가 기혼인 교사보다, 자녀가 없는 교사가 자녀가 있는 교사보다 상상하기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30대가 20대와 40대 이상보다 공감능력의 하위요인 중에서 상상하기가 높게 나타났다는 김경숙(2016)의 연구와는 다소 상반된 결과이다. 공감능력의 하위요인인 상상하기를 Davis(1980)는 책, 영화, 연극 등 허구적인 인물의 느낌이나 행동 속에 자신을 전이시켜 보려는 경향성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를 근거로 볼 때 대부분 경력 5년 이하인 30대 미만 초임교사의 경우, 경력교사보다 호기심이 많고 독창적이며, 경험에 근거하지 않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며 행동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호기심과 창의성은 유아와 자유롭게 상호작용하며 유아에 대한 수용력이 높아 자발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즐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상상력이 풍부하여 변화를 즐기면서 유아에게 긍정적 감정 뿐 아니라 부정적 감정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관대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유아에게 새로운 가능성 추구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하는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교사의 연령, 결혼유무, 자녀유무, 유아 성별에 따라 교사-유아관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세 미만인 교사가 30세 이상인 교사보다, 미혼인 교사가 기혼인 교사보다, 자녀가 없는 교사가 자녀가 있는 교사보다 유아와 친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연령에 있어서 40세 이상인 교사가 40세 미만인 교사보다, 기혼인 교사가 미혼인 교사보다, 여아보다는 남아와 갈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없는 교사가 자녀가 있는 교사보다 교사-유아관계에서 유아의 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할 선행연구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연령이 비교적 낮고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교사가 유아와 친밀감이 높은 것을 볼 때, 교사경력이 짧을수록 유아와의 관계형성에 더 적극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자녀가 없는 교사가 자녀가 있는 교사보다 교사-유아관계에서 유아의 의존성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를 양육해본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비해 유아에 대한 이해와 경험적 지식이 풍부하여 유아에게 조금 더 독립적으로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아의 성별에 따라서도 교사-유아관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아의 경우 교사와 더 친밀하였으며, 남아는 교사와 갈등관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유아관계에서 여아보다 남아와 갈등 관계가 높다는 연구들(김미진, 2013; 단현국, 2004; 박인숙, 2011; 이진숙, 2001; 전경아, 2003; Birch & Ladd, 1997; Hamre & Pianta, 2001; Kesner, 2000)과 일치하는 것으로, 대부분 여성들로 이루어진 교사들은 자신의 성과 반대인 남아의 특성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여아에 비해 남아의 발달이 느리다고 인식하며(이빛나, 2015), 이러한 남아에 대한 낮은 기대감은 남아를 지도할 때 어려움으로 이어져 이로 인한 갈등이 생기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교사가 남아에 비해 여아와 온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더 자주 하게 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만 4-5세부터 여아는 남아보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더 잘 공감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여 표현하는 발달적 특성이 있다(송명자, 1995). 이러한 여아의 특성은 교사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남아는 여아보다 물리적, 언어적으로 높은 공격성과 문제행동을 보이는 비율이 높아 행동반경이 크고 거친 특성이 있어 산만하고 부주의하게 지각되는 발달적 경향이 있다(Shaffer & Kipp, 2014). 이러한 남아의 특성이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에 있어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교사는 남아와 좀 더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여아와 남아의 발달적 특성이 다름을 인식하고, 남아의 감정을 수용하고 신뢰하며,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아가 수용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에 대한 반응 형태를 긍정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서 연령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친사회성에서 남아와 여아 간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났다. 여아는 친사회성이 남아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주도성과 사교성도 여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박주희, 2001; 이상미, 2012; 한선희, 2014)과 일치하며, 남아보다 여아가 친사회성과 또래 수용도가 높다는 연구(허애수, 2003)와도 유사하다. 이러한 차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인 기술이 높고, 언어 발달이 빠른 편이며, 놀이 시 또래와의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사와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도 여아가 친밀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또래 유능성에서 나타나는 성차가 성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아의 연령에 따른 또래 유능성에는 하위요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고 나타났는데, 이는 일부 선행연구들(유정미, 2009; 전미연, 2016; 표은경, 2016)과 일치하는 결과이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또래 유능성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들(박주희, 2001; 이승미, 2015; 허애수, 2003)과 상반된 결과이다. 이는 본 연구를 포함하여 주양육자가 또래 유능성을 평정하지 않고 교사가 평정한 연구들(유정미, 2009; 표은경, 2016)에서 발견되는데, 교사들은 교실에서 관찰되는 유아의 또래 유능성을 유아의 연령에 따른 일반적 사회성 발달을 고려하여 평정하는 경향이 있어서, 연령에 맞는 또래 유능성을 반영하여 연령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추후 메타 분석을 활용하여, 또래 유능성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고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배운정(2011)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또래 유능성은 사회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아 개인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는 유아의 또래 유능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유아의 다양한 개인적 특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세심하고 민감한 이해와 반응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교사의 공감능력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간의 관계에서 교사-유아관계의 매개적 역할에 대해 살펴본 결과, 교사의 공감능력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간의 관계에서 교사-유아관계의 하위요인인 친밀한 관계가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의 공감능력은 교사-유아 관계를 더욱 더 친밀하게 만들고 이러한 친밀함을 매개로 유아 또래 유능성이 증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정서표현과 양육행동 등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백민선, 2015; 석민아, 2016; 윤정원, 2015; 장혜영, 2011)은 다수 수행되어 왔지만, 교사 변인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은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직접적인 선행연구와의 결과 비교는 쉽지 않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교사-유아관계의 하위요인 중에서 친밀(Closeness)은 교사와 유아 간 온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 정도를 의미하며, 유아에게 정서적 지지와 안정감을 지원하는 교사와 친밀감을 가진 유아는 교사를 안전기지로 여기며 교사에게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영선, 2016). 즉, 교사와 친밀함을 유지한 유아는 안전기지로 여기는 교사를 시작으로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Howes와 Hamilton(1992)은 교사와 유아의 안정적인 애착형성은 부모에 대한 애착의 결핍을 보상하고 부모와 격리되는 불안을 완충하고 보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유아의 사회적인 유능감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주양육자인 부모 뿐 아니라 교사의 역할도 중요함을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교사와 유아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교사의 노력과 친밀감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상호작용에 관한 교사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교사가 유아를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인 교사의 공감능력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의 공감능력은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에 있어 주요한 요인이 되며, 교사의 공감능력은 유아의 심리상태와 감정을 인식하고 공유함으로써 유아와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도울 수 있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한은미(2008)는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공감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연구가 활성화 되고 있으며, 특히 이혼증가와 각종 사회적 범죄의 증가 등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로 인한 유아의 심

리·사회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교사의 공감수준을 향상시킬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교사 공감 훈련의 중요성을 살펴본 김은경과 하영례(2013)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공감훈련 프로그램 참여 후 교사의 행동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는데, 유아를 수용하고 배려하며 통찰하는 과정을 거쳐 유아의 의견을 존중하고 애정적 행동을 하며 유아의 활동을 공유하는 등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볼 때 교사의 공감능력이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 증진을 돕는 주요한 요인으로 교사의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교사 교육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유아의 또래 유능성 향상을 위해 유아교사의 공감능력과 교사-유아관계에서 친밀감의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아의 또래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교사-유아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긍정적인 교사-유아관계를 위해 교사의 공감능력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와 공감능력 증진을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는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 긍정적인 사회관계에 대하여 기대하게 되며, 또래와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종합해보면 그동안 교사의 공감능력, 교사와 유아의 관계, 유아의 또래 유능성을 각각 따로 살펴본 연구에서 더 나아가 하위요인들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밝히고, 세 변인들의 관계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교사의 공감능력 향상과 교사와 유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유아교육기관의 교사 전문성 향상 교육과 환경조성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시사점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라 교사-유아관계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교사의 연령, 교사의 결혼유무, 교사의 자녀유무에 따라 교사-유아관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사-유아 상호작용 향상을 위한 교사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있어서 교사의 영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교사의 역할에 따라 유아의 또래관계는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실제적으로 증명하여 교사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 있어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보육현장에서 교사-유아 관계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교사의 공감능력과 유아의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교사-유아관계의 하위요인인 ‘친밀한 관계’가 완전매개역할을 한다는 점을 증명하였다. 이는 교사의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새로운 연구의 연구주제 설정에 지표가 될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공감능력이 유아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와 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사의 공감능력이 유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교사의 공감능력이 유아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유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에서 연구대상을 선정할 필요

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교사의 공감능력, 교사-유아관계, 유아의 또래 유능성의 평가를 교사 1인 보고에 의존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교사의 공감능력과 교사-유아관계, 유아의 또래 유능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직접적인 관찰연구와 질적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또래와의 관계가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을 형성하는 시기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교사의 공감능력과 교사-유아관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교사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유아의 또래 유능성 향상을 위한 교사의 공감능력 향상 프로그램과 교사-유아관계 증진을 위한 교사 교육의 실시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강정원 (2002). 교사의 효능감과 학생의 학업성취도간의 관계분석 연구. **열린교육연구**, 10(2), 43-60.
- 곽희경 (2011). 유아교사의 행복감 및 자아정체감과 교사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미 (2017). 유치원 교사의 수업화법능력과 공감능력 및 유아의 의사소통능력 간 관계.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숙 (2016).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교사의 공감능력이 유아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 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신 (2017). 어린이집교사의 공감능력이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진 (2013). 교사가 지각한 교사-유아 관계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 **한국유아교육연구**, 15(1), 137-163.
- 김선희 (2009).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정서조절양식을 매개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송희 (2014). 의도적 통제와 어머니 양육행동 및 교사-유아관계가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희 (2015). 교사-유아 관계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 (2006). 유아의 정서지능과 또래 유능성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경, 하영례 (2013). 공감적 교사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한 보육교사의 이해와 행동의 변화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17(5), 267-289.
- 김창순 (2013). 공감능력향상 집단프로그램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단현국 (2004). 유아의 유치원 적응의 함수풀이 탐색. 한국교원대학교 교과 교육 공동연구소 편, **교과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활용방안 모색** (pp. 3-13). 청원, 충북: 한국교원대학교 출판부.
- 배윤정 (2011). 유아의 연령, 성별 및 부모의 연령에 따른 유아의 자아개념과 또래 유능성.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민선 (2015).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또래 유능성.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일 (2013). 흠의 공감론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희 (1996). 공감의 구성요소와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 연구. **한국교육학회지**, 34(5), 143-166.
- 박인숙 (2011). 교사가 지각한 교사-유아관계와 유아의 유치원 적응과의 관련성.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주희 (2001).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전략.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주희, 이은혜 (2001). 취학 전 아동용 또래 유능성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9(1), 221-232.
- 서원경 (2006). 야간보육교사의 애착에 대한 인식 및 상호작용 변화에 따른 영아와의 애착 증진 과정.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2), 213-247.
- 석민아 (2016). 부모의 스트로크 유형 및 자기표현력이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명자 (1995). 발달이론체계의 최근동향 개관.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21, 29-47.
- 송길연, 김수정, 이지연, 양돈규 (2000). **발달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양인아 (2009). 5세 유아의 또래 유능성과 자기조절력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은주 (2017). 유아의 정서지능, 친사회적 행동, 교사-유아관계가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위영희 (2004). 유아의 정서 능력과 또래 유능성. **유아교육학회지**, 23(1), 137-158.
- 유정미 (2009). 교사-유아관계,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및 또래 유능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정원 (2015).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 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빛나 (2015). 교사의 유아 성에 따른 특성 인식 및 지도의 어려움.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미 (2012). 유아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 놀이신념 및 유아의 놀이행동과 또래 유능성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순 (2008).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훈육유형, 교사의 공감능력 및 학생의 교사신뢰와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미 (2015).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선 (2016). 유아의 기질, 자아탄력성, 또래관계, 교사-유아관계가 유아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진숙 (2001). 유아의 애착표상과 교사-유아관계 및 사회적능력 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혜영 (2011). 부모의 양육행동 및 유아의 자기효능감이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경아 (2003). 유아의 또래관계 및 교사와의 관계가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미연 (2016).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교사관계가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선희, 황혜정 (2011). 교사-유아 간 상호작용과 유아의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어린이미디어학회**, 10(3), 1-18.
- 최연정 (2016). 보육교사의 공감능력과 정서표현성이 교사와 영유아 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표은경 (2016). 유아의 기질과 교사-유아관계가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애수 (2003).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 및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또래 유능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선희 (2014). 유아의 정서지능, 어머니의 양육행동, 교사-유아관계가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은미 (2008). 초등학교 교사의 공감수준이 아동과의 갈등 및 대응방식에 미치는 효과.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인호, 장성화 (2012). 교사의 심리적 안녕감, 공감능력, 직무효율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컨텐츠학회**, 12(2), 232-242.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doi:10.1037/0022-3514.51.6.1173
- Birch, S. H., & Ladd, G. W. (1997).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Psychology*, 35(1), 61-79. doi:10.1016/S0022-4405(96)00029-5
- Coie, J. D., Dodge, K. A., & Kupersmidt, J. B. (1990). *Peer group behavior and social status*.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affer, D. R., & Kipp, K. (2014). Developmental psychology: Childhood and adolescence, **발달심리학** (송길연, 김수정, 이지연, 양돈규 옮김). 서울: 박영스토리(원판 2007).
- Davis, M. H.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1), 85-103.*
- Gage, N., & Berliner, D. (1998). *Education psychology (2nd ed.)*. Boston, MA: Houghton Mifflin.
- Hamre, B. K., & Pianta, R. C. (2001). Early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the trajectory of children's school outcomes through eighth grade. *Child Development, 72(2)*, 625-638. doi:10.1111/1467-8624.00301
- Howes, C. (1987). Social competence with peers in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sequences. *Developmental Review, 7(3)*, 252-272. doi:10.1016/0273-2297(87)90014-1
- Howes, C., & Hamilton, C. E. (1992). Children's relationship with childcare teachers: Stability and concordance with parental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63(4)*, 867-878. doi:10.1111/j.1467-8624.1992.tb01667.x
- Hymel, S., Bowker, A., & Woody, E. (1993). Aggressive versus withdrawal unpopular children: Variations in peer and self-perceptions in multiple domains. *Child Development, 64(3)*, 879-896. doi:10.1111/j.1467-8624.1993.tb02949.x
- Kesner, J. E. (2000). Teacher characteristics and the quality of child-teacher relationship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8(2)*, 133-149. doi:10.1016/S0022-4405(99)00043-6
- Lipps, T. (1903). Empathy and aesthetic pleasure. *Aesthetic Theories: Studies in the Philosophy of Art, 1(4)*, 403-412.
- Pianta, R. C. (1994). Patterns of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 and kindergarten teacher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2(1)*, 15-31.
- Pianta, R. C., & Walsh, D. (1996). *High-risk children in the school: Creating sustaining relationships*. NY: Routledge.
- Krznaric, R. (2014). Empathy, 공감하는 능력(김병화 옮김). 서울: 길벗(원판 2014).
- Stoffer, D. L. (1970). Investigation of positive behavioral change as a function of genuineness, non-possessive warmth and empathic understanding.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63(1)*, 225-228. doi:10.1080/00220671.1970.10883992
- Trawick-Smith, J. (2000).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 multicultural perspective*. Columbus, Ohio: Meril.
- Truax, C. B., & Tstun, C. D. (1966). An extension from the effective psychotherapeutic model to constructive personality change in preschool children. *Childhood Education, 42(1)*, 456-462.
- Wollfolk, A. (1998). *Educational psychology (6th ed.)*. Boston, MA: Allyn Bacon.

논문투고: 17.08.15
수정원고접수: 17.11.14
최종게재결정: 17.11.30